

컨트라스트 배색조화에 영향을 미치는 색과 톤의 영향 - 남성복 셔츠와 타이틀 중심으로 -

임지영

신라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The Effect of Color and Tone on Harmony of Contrast Coloration -Focus on Shirt and Tie of Menswear-

Ji-Young Lim

Div. of Fashion Industry, Silla University, Busan, Korea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used color and tone on harmony perception by applying contrast coloration of shirt and necktie. This experiment designed by shirt color(red, blue, purple, green), tie color(green or blue tie with red shirt, yellow or red tie with blue shirt, yellow or green tie with purple shirt, purple or red tie with green shirt), shirt tone(vivid, light, dull, dark), tie tone(vivid, light, dull, dark), and perceiver gender(a male, a female). The experimental materials developed for this study were a set of stimulus and response scales. we harmonized those colors of shirts and neckties contrast, then made shirt and necktie tone differently. The subjects of this research were 640 male and 640 female college students. The data was analyzed by using SPSS program. Shirt color, tie color, shirt tone, tie tone, perceiver gender influenced on harmony perception independently. Shirt color and tie color, shirt color and shirt tone, shirt color and perceiver gender, tie color and tie tone, tie color and perceiver gender, shirt tone and tie tone influenced on the harmony perception by interaction.

Key words : harmony, contrast coloration, color, tone

1. 서 론

최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와 의복을 통한 자기표현의 욕구가 커지면서 남성 소비자의 패션에 대한 의식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에 부응하여 남성복 시장은 한층 더 다양화, 고급화, 개성화를 추구하게 되었으며, 남성 패션의 감성화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특히 남성 정장의 개념이 확대되어 포멀 정장뿐만 아니라 캐주얼 정장의 구매가 늘어나고 있으며 남성복이 캐주얼 라인 중심으로 변화되어 남성의 드레스 셔츠를 포함한 남성복의 색상 및 디자인이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로 정장이나 캐주얼 할 것 없이 눈에 띄는 컬러 코디네이션이나 감성적인 디자인이 많아지고 포인트 컬러 배색이나 화려한 액세서리가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남성복의 변화 속에서도 타이틀은 실용적인 면만을 따지면 뚜렷한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님에도 오랜 세월 이어져 내려오는 것은 타이틀이 가지는 심미적인 가치 때문일 것이며, 남성복에 있어 타이틀은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타이틀을 통해 자기표

현이 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남성복은 디자인의 변화가 적어 남성복 착용자의 개성을 살리는데 셔츠와 타이틀의 코디네이션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셔츠와 타이틀을 코디네이션 할 때는 주로 셔츠와 타이틀의 배색 즉 2색의 배색의 변화를 시도하게 된다. 셔츠와 타이틀의 배색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이상의 색채가 기본 요소에 준하여 균형을 취해야 하므로, 색채조화는 “조합된 색이 아름답고 좋은 느낌을 갖출 상태”이며 색들의 관련효과의 가치평가에 대한 것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Ippen, 1996).

그러나 색채조화(color harmony)는 색의 속성 중 어느 한가지의 조화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어느 한가지만 조화되지 않아도 이루어지지 못한다. 따라서 색채조화를 이루려면 조화시키려는 색채들이 색상, 명도, 채도면에서 서로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를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색상과 톤은 상호 독립적이기보다는 항상 공존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색상조화에는 색상과 톤이 적용된 배색이 전개되어야 한다.

패션디자인의 색채 조합에서는 통일된 요소로 색상이, 변화의 요소로 색조(tone)가 많이 사용되었다. 유사 색상이나 대조 색상 조합이 아닌 경우에는 색조차에 의한 대조성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저채도와의 조합에서 높은 조화도를 보이며, 채도 변화에 의한 색조 변화보다는 명도 변화에 의한

Corresponding author; Ji-Young Lim
Tel. +82-51-999-6243, Fax. +82-51-309-5736
E-mail: jyylim@silla.ac.kr

색조 변화 시 더 조화도를 높일 수 있다(조민정, 2004). 또한 양지영(2005)의 보색배색의 색채균형에 관한 연구에서도 색조차가 큰 대비, 대조 색조끼리의 보색배색을 가장 균형적이라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명도 및 채도가 낮은 색과 높은 색과의 조합을 가장 균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보색배색에서도 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컨트라스트 배색은 균형적인 배색이며, 또한 컨트라스트 배색조화도 색상과 톤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 연구에서는 컨트라스트 배색으로 조합한 셔츠와 타이의 색채조화를 지각함에 있어 셔츠와 타이의 색과 톤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남성복에 있어서 컨트라스트 배색은 독특한 배색이긴 하나 컨트라스트 배색된 셔츠와 타이의 배색조화를 지각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단서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색채조화이론 정립과 남성복의 색채 기획에 있어서 새로운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배색이란 두 가지 이상의 색이 서로 어울려서 하나의 색만으로 얻을 수 없는 효과를 얻는 것으로 조화로운 색 사용으로 인한 다양성의 통일로 아름다움의 완전성을 구하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배색 시에는 단색보다는 두 색이 조합되면 표현범위가 넓어져 두 색 이상의 조합에서 주는 인상은 단색에서 주는 인상보다 감정가치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박은주, 1999).

색상 간격과 조화감을 연구한 Granger(1955)는 배색되는 두 색의 간격이 멀어질수록 조화감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으며, 한국여대생은 비비드톤의 초록저고리와 빨강치마의 대비배색이 가장 잘 조화되는 것으로 지각하였다(강경자·정수진, 2005). 또한 패션디자인에 있어서 초록색과의 배색은 대체로 조화도가 낮아지나 초록색 계열이 액센트색으로 사용될 경우는 조화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조민정, 2004).

그러나 컨트라스트 배색은 보색과 반대색으로 대립관계를 살린 배색으로 부조화스럽거나 저항감이 크기 때문에(김영자, 1992), 색상차가 증가할수록 조화성이 낮아지며, 조화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명도 조합을 이루거나 저채도와 조합하여 색상차를 저하시켜야 한다(조민정, 2004). 보색배색에서는 이미 색상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명도와 채도는 통일되게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이은영, 1996), 색상차가 적을수록 그 조화는 명도차에 의해 영향을 받기 쉬우며 색상차가 클 때에는 비교적 명도차에 의한 영향이 적다고 볼 수 있다(김수석, 1993). 타이색은 수트와 셔츠보다 진하고 채도가 낮은 것이 권위적인 효과를 내며(Molloy, 1978), 짙은 색의 의복은 관리적 능력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선명한 색보다 낮은 채도의 의복은 착용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형성한다(Francis·Evans, 1987).

색상대비가 강한 보색배색이라 할지라도 배색되는 색상에 따

라 다른 인상을 주는 데, 스트라이프 배색이 노랑/남색일 때 가장 현시적이고, 가볍고, 밝고 시원하며 시교적인 인상을 주었고, 빨강/청록, 녹색/자주 색상대비는 무겁고 답답하며 비사교적인 인상으로 인식되었다. 파랑/주황 배색은 따뜻하고 감성적이며 부드러운 인상을 주고, 빨강/청록 배색은 다른 색상대비에 비해 가장 차갑고 이성적이며 딱딱한 인상으로 지각되었다(문주영·강경자, 2006).

內藤 외(2001)의 슈트, 셔츠, 넥타이의 색이 착용자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조화·사회성과 현시성의 두 요인이 구성되었으며, 그리고 착용자에 상관없이 감색(navy blue)과 회색(gray) 슈트(suit)가 조화·사회성 요인에 효과적이었고, 20대 모델일 경우 슈트색이 중간 톤이거나 약간 높을 때, 50대 모델일 경우는 낮은 톤일 때 조화·사회성 요인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셔츠와 타이의 톤은 톤 배색의 조화감 지각에 지배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셔츠톤과 타이톤으로 나타난 반면에 색상은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색상은 셔츠톤과 또는 셔츠와 타이톤과의 상호작용으로 지각단계에서 통합되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셔츠톤과 타이톤은 독립된 정보로 작용함은 물론 상호작용으로 영향을 미쳐 셔츠와 타이의 배색에서 톤이 주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임지영·강경자, 2005).

이상에서 컨트라스트 배색은 균형적인 배색이며, 또한 패션 디자인의 색채 조합 특성은 통일의 요소로는 색상을, 변화의 요소로는 톤을 많이 사용하므로 셔츠와 타이의 컨트라스트 배색 조화에 미치는 색상과 톤의 영향을 알아보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셔츠와 타이가 조합된 자극물과 이에 대한 배색 조화감을 측정하는 의미미분척도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극물 : 본 연구에 사용된 셔츠색은 심리적 측면에서 색채가 갖는 속성인 온도감을 기준으로 한난색과 중성색으로 나누어 빨강, 파랑, 보라, 초록 4가지 색상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타이색은 셔츠와 타이 배색이라는 의복형태를 생각하여 정보색을 피하고 각 셔츠색에 준보색 2가지를 선정하였다. 즉 빨강셔츠에는 초록과 파랑타이, 파랑셔츠에는 빨강과 노랑타이, 보라셔츠에는 노랑과 초록타이, 초록셔츠에는 보라와 빨강타이를 배색하였다. 셔츠와 타이에 사용된 톤은 색채조화를 주목적으로 한 컬러 시스템인 일본색연배색체계(Practical Color Coordinate System)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명도에 변화를 준 라이트(lt), 덜(d), 다크(dk)의 3가지 톤과 색상의 기준이 되는 비비드톤(v)을 합하여 총 4가지 톤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셔츠와 타이에 사용된 색상과 톤은 Table 1과 같다. 색상의 표시는 실용한

Table 1. 자극물에 사용된 색상과 톤

색상	비비드(vivid)	라이트(light)	덜(dull)	다크(dark)
빨강(red)	5R 4/14	5R 8/6	5R 5/6	5R 2/6
노랑(yellow)	5Y 4/14	5Y 8/6	5Y 5/6	5Y 2/6
초록(green)	5G 5/10	5G 8/4	5G 6/4	5G 2/4
파랑(blue)	5B 4/14	5B 8/6	5B 5/6	5B 2/6
보라(purple)	5P 5/10	5P 8/4	5P 6/4	5P 2/4

국표준색표집(KBS 한국색채연구소, 1991)에 근거하여 기입하였으며 Table 1의 24가지의 색상을 만들기 위해 먼저 컬러 차트를 출력하여 출력된 컬러를 참고로 제시된 색과 가장 근접한 컬러를 만든 후, 이 컬러를 다시 사진의 셔츠와 타이에 맵핑시켰다. 맵핑시킨 컬러 또한 처음 지정된 컬러와 일치할 때까지 수정하여 컬러를 최종 완성하였다. 자극물의 조작분류는 Table 2와 같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극물의 스타일은 셔츠와 타이를 착용한 20대 남자의 허벅지 중간까지 제시된 상반신 모습으로 얼굴과 헤어스타일, 바지는 통재하였다. 셔츠는 레귤러 칼라 셔츠를 사용한 기본 드레스 셔츠이며, 타이는 가장 폭이 넓은 부분이 9.5 cm이고 길이가 140 cm인 일반적인 형태로 문양이 없는 단색의 타이를 사용하였다.

자극물의 평가 : 본 연구의 자극물에 대한 평가는 피험자는 남녀 대학생으로, 독립변인은 셔츠의 색상 4가지와 타이색은

각 셔츠색에 따른 보색 2가지와 셔츠톤 4가지, 타이톤 4가지로 하였다. 이들 독립변인의 조합에 의해 총 128개의 자극물을 제작하여 셔츠와 타이의 2색 배색에 대한 조화감 평가를 실시하였다. 총 128개의 자극물을 64개의 실험조합으로 구성하고 하나의 실험조합에 2장의 자극물을 포함시켰다. 각 실험조합당 피험자수는 실험조합별로 10명씩 피험자간 설계에 의해 무선 배치되었다. 하나의 실험조합에 포함된 자극물은 색상과 톤의 조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순서효과를 없애기 위해 각각자에게 제시되는 자극물의 순서를 달리 하였다.

조화감의 척도 : 본 연구에서는 셔츠와 타이의 2색 배색에 대한 조화감 평가를 위해 ‘조화되는-조화되지 않는’과 ‘어울리는-어울리지 않는’의 형용사쌍을 사용하여 7단계 의미미분척도를 제시하였다. 형용사쌍 중간을 기준으로 왼쪽 긍정적인 형용사에 +3점을 주고 오른쪽 부정적인 형용사에 -3점을 주어 자료를 수량화하였다. 컨트라스트 배색에 대한 조화감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905로 나타났다.

3.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평가자는 진주와 진주 인근의 대학교 의상, 미술 관련학과 및 법학, 공학과의 남녀 대학생 각각 640명씩 총 128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은 2004년 5월초~9월말 사이에 이루어졌다.

Table 2. 자극물의 조작 분류

셔츠		타이							
		Green				Blue			
		v	lt	d	dk	v	lt	d	dk
Red	v	vR-vG	vR-ltG	vR-dG	vR-dkG	vR-vB	vR-ltB	vR-dB	vR-dkB
	lt	ltR-vG	ltR-ltG	ltR-dG	ltR-dkG	ltR-vB	ltR-ltB	ltR-dB	ltR-dkB
	d	dR-vG	dtR-ltG	dtR-dG	dR-dkG	dR-vB	dtR-ltB	dtR-dB	dR-dkB
	dk	dkR-vG	dkR-ltG	dkR-dG	dkR-dkG	dkR-vB	dkR-ltB	dkR-dB	dkR-dkB
Blue	Red				Yellow				
	v	vB-vR	vB-ltR	vB-dR	vB-dkR	vB-vY	vB-ltY	vB-dY	vB-dkY
	lt	ltB-vR	ltB-ltR	ltB-dR	ltB-dkR	ltB-vY	ltB-ltY	ltB-dY	ltB-dkY
	d	dB-vR	dB-ltR	dB-dR	dB-dkR	dB-vY	dB-ltY	dB-dY	dB-dkY
dk	dkB-vR	dkB-ltR	dkB-dR	dkB-dkR	dkB-vY	dkB-ltY	dkB-dY	dkB-dkY	
Purple	Yellow				Green				
	v	vP-vY	vP-ltY	vP-dY	vP-dkY	vP-vR	vP-ltR	vP-dR	vP-dkR
	lt	ltP-vY	ltP-ltY	ltP-dY	ltP-dkY	ltP-vR	ltP-ltR	ltP-dR	ltP-dkR
	d	dP-vY	dP-ltY	dP-dY	dP-dkY	dP-vR	dP-ltR	dP-dR	dP-dkR
dk	dkP-vY	dkP-ltY	dkP-dY	dkP-dkY	dkP-vR	dkP-ltR	dkP-dR	dkP-dkR	
Green	Purple				Red				
	v	vG-vY	vG-ltY	vG-dY	vG-dkY	vG-vR	vG-ltR	vG-dR	vG-dkR
	lt	ltG-vY	ltG-ltY	ltG-dY	ltG-dkY	ltG-vR	ltG-ltR	ltG-dR	ltG-dkR
	d	dG-vY	dG-ltY	dG-dY	dG-dkY	dG-vR	dG-ltR	dG-dR	dG-dkR
dk	dkG-vY	dkG-ltY	dkG-dY	dkG-dkY	dkG-vR	dkG-ltR	dkG-dR	dkG-dkR	

3.3.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1280부에 대한 자료 분석은 SPSS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통계 분석방법은 조화감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일원분산 분석을 하였고 유의한 차이가 나는 경우 사후 분석으로 L.S.D(최소유의차검증)를 하였다. 조화감에 미치는 단서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배색방법에 따라 5원변량분석을 하였고 각 변인별 차이를 보기 위해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남성복에서 셔츠와 타이의 컨트라스트 배색에 대한 조화감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색상과 톤의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4가지 셔츠색에 타이색이 보색 및 분보색조화가 되도록 빨강셔츠에 초록, 파랑타이, 파랑셔츠에 빨강, 노랑타이, 보라셔츠에 노랑, 초록타이, 초록셔츠에 보라, 빨강타이의 배색으로 조합한 후 명도에 변화를 주어 셔츠와 타이의 톤이 각기 다르도록 조합한 128개의 배색의 조화감을 평가를 하여 컨트라스트 배색의 단서인 셔츠색, 타이색, 셔츠톤, 타이톤, 지각자성별의 5가지 단서가 조화감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5원 변량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셔츠색, 타이색, 셔츠톤, 타이톤, 지각자성별 중 어떤 단서들이 컨트라스트 배색의 조화감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먼저 이들 5가지 변인 모두 컨트라스트 배색의 조화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5가지 단서 중에서 셔츠와 타이의 컨트라스트 배색의 조화감 지각에 지배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타이톤으로 나타났으며, 셔츠색과 셔츠톤도 다른 단서에 비해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조화감 지각에는 의복의 색상뿐만 아니라 톤도 중요한 단서가 됨을 알 수 있었다.

MCA의 평균값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셔츠색은 중성색인 보라나 초록색 보다 한난색인 빨강이나 파랑색이 조화감 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두가지 타이색은 큰 차이는 없으므로 나타났으며, 셔츠톤은 v나 lt는 부정적으로, d, dk는 조화감 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이톤은 셔츠톤과 동일하게 어두운 d이나 dk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비교해보면 남자는 긍정적으로, 여자는 부정적으로 조화감 평가를 하였다.

또한 이들 단서들은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셔츠색과 타이색이, 셔츠색과 셔츠톤이, 셔츠색과 지각자성별이, 타이색과 타이톤이, 타이색과 지각자성별이, 셔츠톤과 타이톤이 상호작용하여 조화감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셔츠와 타이의 컨트라스트 배색에 대한 조화감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단서들 간의 유의적인 상호작용효과를 Fig 1, 2, 3, 4, 5, 6에 나타내었다.

조화감에 영향을 미치는 셔츠색과 타이색의 상호작용효과를 Fig. 1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셔츠와 타이가 컨트라스트 배색되

Table 3. 컨트라스트 배색의 조화감 지각에 미치는 셔츠색, 타이색, 셔츠톤, 타이톤, 지각자성별의 영향

		조화감	
		평균	F값
주효과	셔츠색(A)	56.589	22.438***
	타이색(B)	10.634	4.216*
	셔츠톤(C)	55.329	21.938***
	타이톤(D)	75.712	30.020***
	성별(E)	21.482	8.518*
2원 상호작용효과	A×B	22.192	8.799***
	A×C	24.819	9.841***
	A×D	22.540	8.937***
	A×E	2.317	.919
	B×C	5.086	2.017
	B×D	8.804	3.491*
	B×E	12.258	4.860*
	C×D	6.165	2.445**
	C×E	3.602	1.428
	D×E	1.413	.560
3원 상호작용효과	A×B×C	2.885	1.144
	A×B×D	13.296	5.272***
	A×B×E	3.128	1.240
	A×C×D	3.380	1.340
	A×C×E	2.675	1.061
	A×D×E	1.574	.624
	B×C×D	4.856	1.925*
	B×C×E	1.622	.643
	B×D×E	2.116	.839
	C×D×E	3.602	1.428
4원 상호작용 효과	A×B×C×D	3.676	1.458
	A×B×C×E	3.424	1.357
	A×B×D×E	1.876	.744
	A×C×D×E	1.734	.687
	B×C×D×E	4.664	1.849
5원 상호작용 효과	A×B×C×D×E	3.998	1.585*
MCA		편차	eta
셔츠색	R	.13	
	B	.36	
	P	-.22	
	G	-.28	.15
	1	.07	
타이색	2	-.07	.04
셔츠톤	v	-.38	
	lt	-.08	
	d	.20	
타이톤	dk	.27	.15
	v	-.48	
	lt	-.02	
	d	.18	
지각자성별	dk	.31	.17
	여	-.09	
	남	.09	.05
Multiple R ²			.078
Multiple R			.2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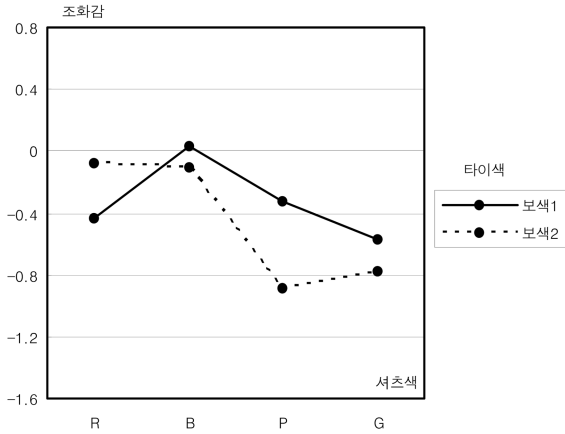


Fig. 1. 컨트라스트 배색의 조화감 지각에 미치는 서츠색과 타이색의 상호작용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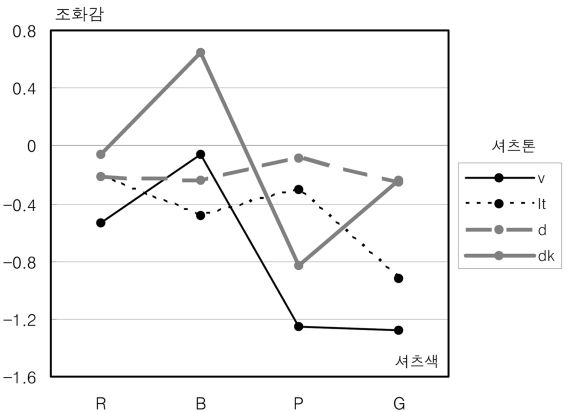


Fig. 2. 컨트라스트 배색의 조화감 지각에 미치는 서츠색과 서츠톤의 상호작용효과.

있을 때 서츠색과 타이색은 조화감 지각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며 두 가지 보색 타이의 영향은 큰 차이 없이 비슷한 경향을 띄는 것으로 나타났다. 빨강서츠에는 파랑타이와 초록타이에 상관없이 컨트라스트 배색은 모두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파랑타이보다 초록타이가 조화감 지각에 특히 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v의 빨강 치마와 초록저고리의 배색이 가장 잘 조화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강경자·정수진, 2005)에서의 결과와 차이를 보였는데 컨트라스트 배색은 남성복에서 특수한 배색이며 또한 서츠와 타이라는 의복유형의 특수성에서 기인된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파랑서츠에는 빨강타이는 긍정적인 영향을, 노랑타이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라서츠나 초록서츠 모두 어떠한 보색 타이를 배색해도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라서츠에는 노랑타이보다 초록타이가 더 부정적으로, 초록서츠에는 빨강타이가 보라타이보다 더 부정적으로 나타나 서츠와 타이의 색상 조합에서 파랑서츠에 빨강타이의 배색을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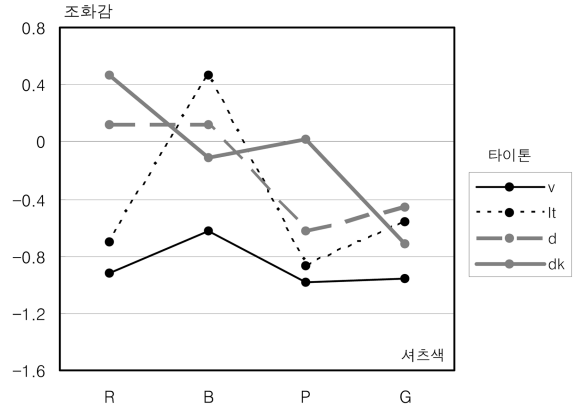


Fig. 3. 컨트라스트 배색의 조화감 지각에 미치는 서츠색과 타이톤의 상호작용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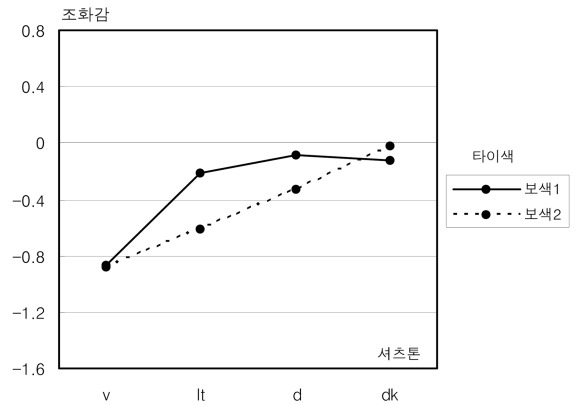


Fig. 4. 컨트라스트 배색의 조화감 지각에 미치는 서츠톤과 타이색의 상호작용효과.

하고는 컨트라스트 배색은 조화감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서츠와 타이의 컨트라스트 배색은 대체로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조화감 지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츠색에 배색되는 타이의 색상 즉, 어떤 보색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조화정도는 다르게 지각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조화감에 영향을 미치는 서츠색과 서츠톤의 상호작용효과를 Fig. 2에서 보면 서츠색이 빨강, 보라, 초록의 경우 톤에 상관없이 부정적으로 지각되었다. 특히 빨강서츠의 경우 톤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톤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보라나 초록서츠의 경우는 톤에 따라 크게 차이를 보여 톤이 부정적 평가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즉, 보라서츠는 d, lt, dk, v 순으로, 초록서츠는 d, dk, lt, v 순으로 조화되지 않는다고 지각하였다. 그러나 파랑서츠의 경우는 dk일 때 매우 긍정적으로, v, d, lt일 때는 다소 부정적으로 지각하였다. 따라서 서츠색상과 서츠톤은 독립된 요인으로 지각되지 않고 상호작용하여 같은 서츠색상도

셔츠톤에 따라서, 또한 셔츠톤이 동일하더라도 셔츠색상에 따라서 조화감 지각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조화감에 영향을 미치는 셔츠색과 타이톤의 상호작용효과를 Fig. 3에서 보면 셔츠색상에 따라 타이톤 간에 조화감 평가가 일관성 있는 차의 방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빨강셔츠는 타이의 톤에 따라 크게 차이를 보여 d, dk는 긍정적으로, v, lt는 부정적으로 조화감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 파랑셔츠의 경우도 타이톤에 따라 크게 차이를 보여 lt, d은 긍정적으로 dk, v는 부정적으로 지각하였고 보라셔츠도 dk는 긍정적으로, d, lt, v는 부정적으로 지각하여 타이의 톤에 따라 조화감 지각에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초록셔츠는 타이톤에 상관없이 부정적으로 지각하였다. 따라서 셔츠색이 초록인 경우는 타이톤의 영향이 크지 않는 반면에 셔츠색이 빨강, 파랑, 보라일 경우는 타이톤에 따라 크게 차이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v 타이는 셔츠의 색상에 관계없이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lt 타이는 셔츠색상이 파랑일 때만 조화되는 것으로 지각하여 lt 타이를 할 경우 셔츠색 즉, 빨강, 보라, 초록색 간의 조화감 차이는 크지 않았다. 타이는 한난색인 빨강과 파랑 셔츠에 할 경우는 조화되고 중성색인 보라, 초록셔츠에 할 경우는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타이는 빨강, 보라셔츠에 할 때 조화되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따라서 셔츠색과 타이톤은 상호작용함으로써 동일한 셔츠색도 타이의 톤에 따라, 동일한 톤의 타이도 셔츠색상에 따라 조화의 정도가 다르게 지각되어 조화감 정도는 셔츠색상만이 아닌 타이의 톤 변화가 함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조화감에 영향을 미치는 셔츠톤과 타이색의 상호작용효과를 Fig. 4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셔츠톤과 타이색이 컨트라스트 배색되었을 때 조화감 지각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셔츠톤이 v나 dk일 때는 컨트라스트 배색된 타이의 색상에 관계없이 조화감 지각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셔츠톤이 lt나 d일 경우는 배색되는 타이의 색상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셔츠톤과 타이색은 조화감 지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동일한 타이색상도 셔츠톤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지각되고 셔츠톤과 타이색상은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조화감에 영향을 미치는 4가지 셔츠톤과 4가지 타이톤의 상호작용효과를 Fig. 5에서 보면 셔츠톤이 v와 lt일 때 타이톤에 상관없이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였으나 셔츠톤보다 타이톤이 짙은 톤이면 조화감 지각에 덜 부정적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조민정, 2004; 김수석, 1993)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셔츠톤이 d이나 dk일 경우는 타이톤에 따라 조화감 지각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셔츠톤이 d일 때는 셔츠보다 어두운 dk 타이나 셔츠보다 밝은 lt 타이를 배색하면 조화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셔츠톤이 dk일 경우는 셔츠보다 밝은 d 타이나 셔츠와 동일한 dk 타이가 조화되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특히 셔츠톤이 d일 때는 타이톤이 lt보다 dk로 하는 것이 더 조화가 잘 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셔츠톤이 dk일때는 dk보다 d 타이가 더 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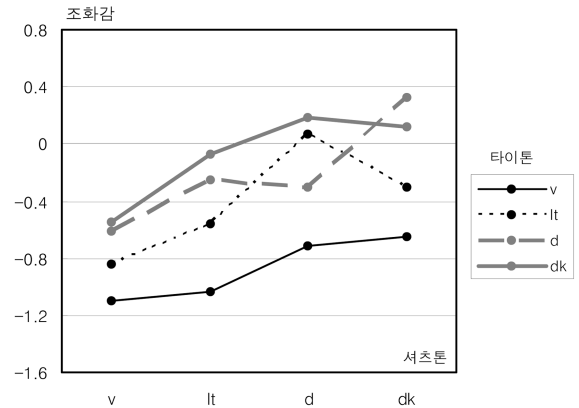


Fig. 5. 컨트라스트 배색의 조화감 지각에 미치는 셔츠톤과 타이톤의 상호작용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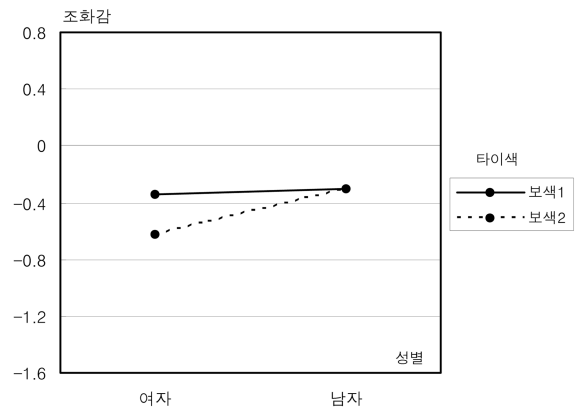


Fig. 6. 컨트라스트 배색의 조화감 지각에 미치는 타이색과 지각자성별의 상호작용효과.

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셔츠톤이나 타이톤이 어두울 때 조화감 지각에 더 긍정적이고 또한 셔츠톤보다 타이톤이 더 짙은 톤일 때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조화감에 영향을 미치는 타이색과 지각자성별의 상호작용효과를 Fig. 6에서 보면 남녀 모두 타이색상에 관계없이 보색배색된 초록, 파랑타이나 빨강, 노랑타이 모두 조화감 지각에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자는 컨트라스트 되는 색상에 관계없이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반면 여자는 컨트라스트 되는 색상에 따라 조화감 평가에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여자는 조화감 평가시 파랑보다는 초록타이가, 노랑보다는 빨강타이가, 초록보다는 노랑타이가, 빨강보다는 보라타이가 더 긍정적으로 조화감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 론

컨트라스트 배색에 대한 조화감 평가에서 4가지 셔츠색에 타

이색이 보색 및 분보색조화가 되도록 조합한 후 명도에 변화를 주어 셔츠와 타이의 톤이 각기 다르도록 조합한 128개의 배색의 조화감을 평가하여 셔츠색, 타이색, 셔츠톤, 타이톤, 각각자성별의 5가지 단서가 컨트라스트 배색조화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5원변량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셔츠색, 타이색, 셔츠톤, 타이톤, 각각자성별의 5가지 독립변인 모두가 조화감 평가에 주효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서로 작용하였으며 이들 단서들 중 타이톤이 컨트라스트 배색조화감 평가에 가장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단서들은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셔츠색과 타이색이, 셔츠색과 셔츠톤이, 셔츠색과 각각자성별이, 타이색과 타이톤이, 타이색과 각각자성별이, 셔츠톤과 타이톤이 상호작용하여 조화감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셔츠색과 타이색의 상호작용효과에서는 셔츠색이 빨강일 때는 파랑타이가, 파랑셔츠에는 빨강타이, 보라셔츠에는 노랑, 초록셔츠에는 빨강타이가 더 배색조화 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셔츠색과 셔츠톤의 상호작용효과에서는 셔츠색이 파랑이고 셔츠톤이 dk일 때 가장 조화가 잘 되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셔츠색과 타이톤의 상호작용효과에서는 셔츠색이 빨강일 때는 타이톤이 d이나 dk이면 조화가 되는 것으로 지각하였으며 셔츠색이 파랑일 때는 타이톤이 lt나 d이면 조화되는 것으로, 셔츠색이 보라이면 dk 타이만 조화되는 것으로 지각하였으며, 셔츠색이 초록일 때는 타이톤에 상관없이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셔츠톤과 타이색의 상호작용효과에서는 대비배색 된 타이색에 상관없이 대체로 셔츠톤이 어두울수록 컨트라스트 배색 조화 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타이색과 각각자성별의 상호작용효과에서는 남자는 타이색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여자는 동일한 셔츠색에 대비배색의 타이라 할지라도 타이색에 따라 조화정도에 차이를 두었는데 즉 빨강셔츠에는 파랑보다는 초록타이가, 파랑셔츠에는 노랑보다는 빨강타이가, 보라셔츠에는 초록보다는 노랑타이가, 초록셔츠에는 빨강보다는 보라타이가 조화감 평가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셔츠톤과 타이톤의 상호작용효과에서는 셔츠톤이 d이면 타이톤은 lt나 dk일 때 조화되며, 셔츠톤이 dk일 때는 타이톤이 d이나 dk이어야 조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컨트라스트 배색조화의 평가에는 색과 톤이 조화감 평가에 주효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서로 작용하여 셔츠색은 빨강이나 파랑이 보라나 초록보다 더 조화감 지각에 효과적이며 특히 파랑셔츠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셔츠와 타이의 색상차가 크므로 셔츠톤이나 타이톤이 어두운 톤일 때 조화감 지각에 더 긍정적이고 또한 셔츠톤보다 타이톤이 더 짙은 톤일 때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특히 타이톤이 중요한 단서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컨트라스트 배색조화에서 톤이 중요한 단서가 되며, 남성복에 있어 타이는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즉각적이고 두드러지게 눈에 띄므로 중요한 단서가 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셔츠와 타이의 컨트라스트 배색조화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단서에 대한 연구는 색채조화 분야에 새로운 자료를 제시하고, 나아가 디자인이 단순한 남성복의 색채기획 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셔츠와 타이를 배색함에 있어 수많은 색을 모두 조합하여 볼 수 없으므로 셔츠색을 빨강, 파랑, 보라, 초록 4가지로 한정하여 셔츠색과 분보색의 타이를 선정하였으며, 이들 색을 v, lt, d, dk의 4가지 톤으로 제한하였다. 또한 배색에 따른 색채조화에 중점을 두어 셔츠와 타이는 단색의 기본적인 형태를 사용하였으며 착용자의 얼굴을 통제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색상이나 무늬를 포함한 연구가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경자·정수진 (2005) 한복배색의 조화감에 대한 한·미여대생의 지각반응 연구(IV) -컨트라스트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9(6), 825-836.

김수석 (1993) "조형심리학입문". 지구출판사, 서울, p.128.

김영자 (1992) "한국의 복식미". 민음사, 서울, p.6.

문주영·강경자 (2006) 상의 스트라이프의 방향, 폭, 색상대비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8(3), 1-15.

박은주 (1999) "색채조형의 기초". 미진사, 서울, p.

양지영 (2005) 패션 디자인에 있어서 보색배색의 색채 균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은영 (1996) "복식의장학". 교문사, 서울, p.165.

임지영·강경자 (2005) 셔츠와 넥타이의 톤은 톤 배색에 대한 조화감 연구 -한남색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13(4), 632-645.

조민정 (2004) 패션디자인에 있어서 색채조합에 따른 색채조화 유형과 체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KBS 한국색채연구소 (1991) "실용한국표준색표집". 공업진흥청/한국방송공사.

内藤章江·橋本令子·加藤雪枝 (2001) ビジネススーツの着装イメージと色彩果. *織消誌*, 42(12), 863-871.

Francis, S.M. and Evans, P.K. (1987) Effect hue, value, and garment style on college recruiters' assessments of employment potential. *Perceptual and Motor Skills*, 76, 87-93.

Granger, G.W. (1955) The prediction preference for color harmony. *J. gen Psychol*, 52, 213-222.

Itten, J. (1996) "The Art of Color". Reinhold Pub., New York, p.25.

Molloy, J.T. (1978) "Dress for Success". Warner Book Inc., New York.

(2007년 3월 29일 접수)